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7호 【루게 제24740호】 주제 103 (2014)년 11월 23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72대련합부대와 제630대련합부대 관하 부대들의 연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우리 당의 훈련제일주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날에 날마다 인민군 대전투력강화에서 눈부신 기적과 성과들이 련일 일어나고 빨찌산식 훈련열풍이 백두의 칼바람마냥 전군에 세차게 몰아치고있는 가슴 벅찬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관하 부대들의 연합협동훈련이 진행되였다.

불장난질에 미친 적들의 빈번한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소동과 불망나니들의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으로 하여 남반부 전역이 부산스러운 엄혹한 정세속에서 결전을 기다리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은 정의의 총창마다, 멸적의 총탄마다에 적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만장약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72대련합부대와 제630대련합부대관하 부대들의 연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리영길 동지를 비롯한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오일정 동지, 한광상 동지가 동행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훈련에 참가한 대련합부대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연습진행형식과 방법, 동원력량이 규정된 이번 연합협동훈련은 불리한 일기조건에서의 해군의 해상기동 및 수송능력과 함운용술실태, 특수작전부대들의 기습적인 상륙과 대상물습격전 투수행능력을 불의적으로 검열판정하고 경험과 교훈을 분석총화하여 특수작전능력을 더한층 제고하며 새 년도 전투정치 훈련에 진입하는 전군의 각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당이 제시한 백두산훈련열풍의 불바람을 더 세차게 불어일으켜 훈련제일주의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 나가시여 연합협동훈련계획을 료해하시오 훈련개시명령을 하달하시였다.

먼저 해상수송집단의 해상이동과 상륙해안으로의 접근시기 반작용하는 적에 대한 소멸방법을 검열판정하고 다음으로 특수작전부대들의 상륙전투와 대상물습격전투능력에 대한 검열판정의

순차로 연합협동훈련이 진행되였다.

훈련이 시작되자 해상에서 불시에 나타난 고속함정들이 노도와 같이 해안을 삼킬듯 밀려들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해상수송집단의 침로와 상륙대형편성을 지켜보시며 해상이 동태와 상륙해안접근때 적들의 반작용을 제압하기 위한 방안들과 그에 따르는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이어 특수작전부대의 상륙전투와 대상물습격전투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해안에 상륙한 특수작전부대의 전투원들이 <적> 대상물을 향하여 번개같이 돌격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정말 잘 싸운다고, 그 어떤 적이든 저런 전투원들이 들이닥치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연합협동훈련의 전과정을 주의깊게 보신 다음 오늘 진행된 훈련 결과를 평가하시고 극복해야 할 결함들과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임의의 시각에 불의의 정황을 주고 부대들의 훈련을 직접 조직지도하군 하는데 그것은 오늘의 훈련이 매일의 싸움, 우리

조국의 운명과 직결되어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안의 모든 부대들에서는 각본과 같은 고정적식화된 규범에만 매달려 훈련을 조직진행하지 말고 현 대전에서 제기될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들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현실적인 훈련들을 많이 진행하여 최고사령관이 언제 어떤 정황을 주고 동원명령을 주어도 즉시 전투에 진입하여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72대련합부대와 제630대련합부대 관하 부대들의 연합협동훈련을 조직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모든 훈련의 목적과 기술적배경설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신다고 하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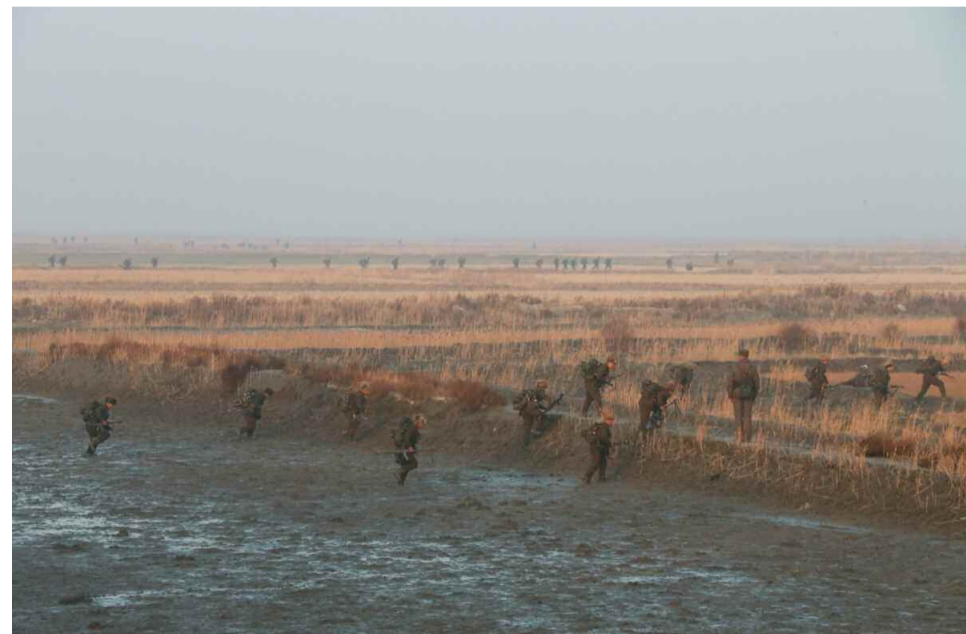
현대전의 양상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는 오늘 진행한 훈련과 같은 연합협동훈련들을 자주 조직진행하여 군종, 병종부대들사이의 긴밀한 협동을 완성하고 전투행동의 불의성과 신속성, 일치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 각급 부대들의 작전수행능력과 지휘성원들의 작전지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안의 모든 지휘성원들과 훈련원들이 변화되는 적의 전쟁수행 방식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하여 훈련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각급 부대들의 훈련을 실

히 무장하고 부대들마다에 백두산훈련열풍이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하여 모든 장병들을 김일성-김정일군사 전략전술과 완벽한 실전능력,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무쇠같은 체력을 소유한 백두산호랑이로 준비시킴으로써 부대들을 강철의 근위부대들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온 한해 포연 자욱한 훈련장들을 찾아 비바람을 다 맞으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다져주시고 한해가 다 저물어가 중심을 두고는 초겨울날의 차디찬 바다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듭거듭 전투력강화의 대강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르며 당의 훈련

그러시면서 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백년아직까지도 혼싸우면 백년 이기는 자랑스러운 인민군대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 몇따기식 잔재가 남아있다고, 이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강한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

시였다. 당과 혁명을 총대로 보위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대적권위 옹위를 제일사명으로, 제일임무로 새기고있는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추한

광기를 부려대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삼켜보려고 광란적인 침략전쟁 연습을 벌려대고있는 역도무리들을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총대의 조준경안에 걸어넣고

우리의 당의 최후공격명령만을 기다릴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

본사정치정보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인권》소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우리는 이미 무모하게 번져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소동이 채택할 과격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바 있다.

우리의 경고에는 대결과 적대시정책에 환장인 그들이 늦게라도 열손 머리를 식히며 사태의 엄중성을 리성적으로 판단하고 정의에 도전하는 시대착오적인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취지가 담겨져있었다.

우리의 이 조치는 내외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의롭고 대바른 여러 나라들이 미국주도하의 대조선 《인권》소동에 반기를 들고 사태수습을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강도적인 약속을 체결하면 미국은 심사숙고할 대신 초보적인 수준도 속대도 없는 어중이떠중이들을 규합하여 유엔무대를 더럽히면서 팔팔대 대조선 《인권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는 망동을 저질렀다.

미국이 EU와 일본 등을 내세워 골격을 만들고 땀과 땀을 승판단 성원국들이 허세치처럼 손을 들어 통과시켰듯이 이번 대조선 《인권결의》이다.

유엔무대에서 조작된 이 특대형모략극은 정의의 부정의로 짓누르고 진리를 허위로 가리워보려는 파렴치한 정치사기극이며 음모와 날조로 세상 사람들을 기만해보려는 첩면피한 광대놀음의 극치이다.

벌어진 사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섭게 격노시키고있으며 치솟는 보복열기는 하늘에 닿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감히 훼손시킨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고 어리석게 저항한것으로 하여 무자비한 징벌의 철퇴를 던질수 없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천만방당 대조선 《인권결의》를 채택하고 그것도 모자라 마치 우리를 어쩔수 없게 만든것처럼 몰수없이 계속 늘어내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엄중히 천명한다.

1.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무대를 악용하여 조작해낸 《인권결의》라는것을 전면거부, 전면배척한다.

우리는 애당초 미국주도하의 불순적대세력들이 우리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기 위해 고안해낸 그 어떤 형태의 《결의》라는것들을 단 한번도 인정해본적이 없다.

이번 대조선 《인권결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이번 《결의》가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제 고향, 제 부모처자마져 버린채 도망간 몇몇 인간쓰레기들이 주어진 거저자료에 기초하여 고안해낸 날조품이기때문이다.

기초한 자료가 터무니없는 거짓일전대 《결의》 또한 아무런 명분도 없다는 세인의 평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정의에 공감하고 양심을 귀중히 여기는 유엔성원국들의 자연스러운 의사표명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강권과 권형, 회유와 매수에 의한 방법으로 통과시킨 정치협잡품이기때문이다.

더우기는 유엔이 모든 나라의 주권중재와 내정불간섭을 근본원칙으로 내세운 유엔헌장마저 저버린채 우리의 주권전복을 노린 미국의 조종에 놀이나 채려한 《결의》이기때문이다.

이따위 《결의》가 사대와 굴종에 체결되고 인간간의 존엄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가련한자들에게는 통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주로 존엄높고 자위, 자립으로 위용 떨치는 우리 공화국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세기를 두고 인류의 생존권과 생활권, 발전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수한 생명을 도륙한 인권유린의 왕초들인 미국과 일본이 저들에게 추종하고 아부해나선 박근혜당과 같은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인권결의》를 들고나왔다는 그자체가 역사에 없는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조작된 대조선 《인권결의》에 대한 전면거부, 전면배척의 단호한 립장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보내는 우리 공화국의 엄중한 경고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바마행정부가 저지른 범죄를 놓고 우리앞에 무릎을 꿇고 정식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이 립장은 일본과 EU인의 어중이떠중이들과 박근혜당에게도 무사할수 없다는것을 알리는 고이다.

우리의 이 립장은 또한 비록 때늦은감은 있지만 유엔도 서둘러 공정한 수습조치를 취하라는 경고이다.

유엔은 20여년전 우리 공화국이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만천하에 정의의 핵선언 피성을 울렸던 때를 심중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2.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포한 대로 극악무도한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기 위한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유엔무대를 도용하여 강압통과된 이번 《인권결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귀중한 모든것을 완전말살해보려는 적대적기도의 총적인 발로이다.

유엔은 곧 자주권이며 해당 나라의 국권이다. 따라서 우리의 참다운 인권에 대한 강도적인 《결의》는 우리 국권을 해지려는 가장 로골적인 선전고고로 된다.

이번 《인권결의》를 날조해내면서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거론하였다사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결의》를 조작한 주범들과 그에 가담한자들모두가 천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최고존엄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운명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초강경대응전의 첫째가는 대상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고립과 경제적봉쇄, 군사적압살과 같은 형형색색의 적대시정책을 다 추구해왔다.

그 모든것이 통하지 않게 되자 이번에는 《인권결의》를 무력간섭의 명분으로 새로운 침략의 전역을 조성해보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초강경대응전은 《인권》소동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행위 일행이 계속되는 한 이미 세상에 선포한 그대로 벌어지게 될것이다.

자주된 진정행위 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자

중심어장을 다고앉아 총공격전을 벌인다

함경남도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당의 전투적소신을 심장으로 받들고 함경남도인의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중심어장을 다고앉아 물고기잡이 전투를 분때있게 벌이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은애국주의를 체철하고 실천해 절제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행복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유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신노양수산연합기업소, 도수산관리국,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적극적인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실적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수산업발전의 운명이 전적으로 일군들의 각오와 준비상태, 실천활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일군들을 불러 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회의체를 열고 사상적으로 달라붙어 물고기잡이에서 일대적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신정치사업을 위호하며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적극적인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실적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중요수산사업소들을 한개씩 맡고나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기동적이고 파격적인 집중어로전을 벌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면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주어 어로공들이 근심걱정이 없고 물고기잡이에 전력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특히 도예술선진대와 인신노양수산연합기업소, 도수산관리국,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바다로, 포구로 달려나가 어로전투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 선단, 배들이사예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이번 물고기잡이전투를 통하여 당앞에 자신들의 향심과 실력을 검증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만들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 위약없이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양회수산사업소, 흥원수산사업소, 서호수산사업소, 락원수산사업소, 리원수산사업소, 흥남대정수산사업소, 성천강출하사업소,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 각기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수산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최선의 성과를 드릴바라는 한마음으로 밤과 밤이 따라 없는 치열한 어로전을 벌여 많은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수준에서 실현된 의로기공장에서 작은 자재와 로력으로 높은 정밀도를 가진 현대적의로기구의 부속품들을 만들어낼수 있게 되었으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활발 늘일수 있게 되었다.

평양전자의의로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현존생산조건에 특대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부속품을 생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평양전자의의로기공장은, 근전계, 고압감속기 등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앞으로 첨단전자의의로기공장을 더 많이 생산할기세등이 계속형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방 경 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은애국주의를 체철하고 실천해 절제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행복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유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신노양수산연합기업소, 도수산관리국,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적극적인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실적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수산업발전의 운명이 전적으로 일군들의 각오와 준비상태, 실천활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일군들을 불러 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회의체를 열고 사상적으로 달라붙어 물고기잡이에서 일대적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신정치사업을 위호하며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적극적인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실적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중요수산사업소들을 한개씩 맡고나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기동적이고 파격적인 집중어로전을 벌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면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주어 어로공들이 근심걱정이 없고 물고기잡이에 전력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특히 도예술선진대와 인신노양수산연합기업소, 도수산관리국,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바다로, 포구로 달려나가 어로전투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 선단, 배들이사예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이번 물고기잡이전투를 통하여 당앞에 자신들의 향심과 실력을 검증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만들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 위약없이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양회수산사업소, 흥원수산사업소, 서호수산사업소, 락원수산사업소, 리원수산사업소, 흥남대정수산사업소, 성천강출하사업소,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 각기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수산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최선의 성과를 드릴바라는 한마음으로 밤과 밤이 따라 없는 치열한 어로전을 벌여 많은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수준에서 실현된 의로기공장에서 작은 자재와 로력으로 높은 정밀도를 가진 현대적의로기구의 부속품들을 만들어낼수 있게 되었으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활발 늘일수 있게 되었다.

평양전자의의로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현존생산조건에 특대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부속품을 생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평양전자의의로기공장은, 근전계, 고압감속기 등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앞으로 첨단전자의의로기공장을 더 많이 생산할기세등이 계속형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방 경 천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수산업발전의 운명이 전적으로 일군들의 각오와 준비상태, 실천활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일군들을 불러 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회의체를 열고 사상적으로 달라붙어 물고기잡이에서 일대적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신정치사업을 위호하며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적극적인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실적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중요수산사업소들을 한개씩 맡고나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기동적이고 파격적인 집중어로전을 벌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면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주어 어로공들이 근심걱정이 없고 물고기잡이에 전력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바다로, 포구로 달려나가 어로전투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 선단, 배들이사예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이번 물고기잡이전투를 통하여 당앞에 자신들의 향심과 실력을 검증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만들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 위약없이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양회수산사업소, 흥원수산사업소, 서호수산사업소, 락원수산사업소, 리원수산사업소, 흥남대정수산사업소, 성천강출하사업소,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 각기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수산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최선의 성과를 드릴바라는 한마음으로 밤과 밤이 따라 없는 치열한 어로전을 벌여 많은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수준에서 실현된 의로기공장에서 작은 자재와 로력으로 높은 정밀도를 가진 현대적의로기구의 부속품들을 만들어낼수 있게 되었으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활발 늘일수 있게 되었다.

평양전자의의로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현존생산조건에 특대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부속품을 생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평양전자의의로기공장은, 근전계, 고압감속기 등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앞으로 첨단전자의의로기공장을 더 많이 생산할기세등이 계속형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방 경 천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수산업발전의 운명이 전적으로 일군들의 각오와 준비상태, 실천활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일군들을 불러 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회의체를 열고 사상적으로 달라붙어 물고기잡이에서 일대적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신정치사업을 위호하며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적극적인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실적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중요수산사업소들을 한개씩 맡고나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기동적이고 파격적인 집중어로전을 벌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면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주어 어로공들이 근심걱정이 없고 물고기잡이에 전력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바다로, 포구로 달려나가 어로전투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 선단, 배들이사예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이번 물고기잡이전투를 통하여 당앞에 자신들의 향심과 실력을 검증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만들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 위약없이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양회수산사업소, 흥원수산사업소, 서호수산사업소, 락원수산사업소, 리원수산사업소, 흥남대정수산사업소, 성천강출하사업소,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 각기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수산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최선의 성과를 드릴바라는 한마음으로 밤과 밤이 따라 없는 치열한 어로전을 벌여 많은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수준에서 실현된 의로기공장에서 작은 자재와 로력으로 높은 정밀도를 가진 현대적의로기구의 부속품들을 만들어낼수 있게 되었으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활발 늘일수 있게 되었다.

평양전자의의로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현존생산조건에 특대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부속품을 생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평양전자의의로기공장은, 근전계, 고압감속기 등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앞으로 첨단전자의의로기공장을 더 많이 생산할기세등이 계속형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방 경 천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수산업발전의 운명이 전적으로 일군들의 각오와 준비상태, 실천활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일군들을 불러 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회의체를 열고 사상적으로 달라붙어 물고기잡이에서 일대적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신정치사업을 위호하며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적극적인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실적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중요수산사업소들을 한개씩 맡고나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기동적이고 파격적인 집중어로전을 벌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면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주어 어로공들이 근심걱정이 없고 물고기잡이에 전력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바다로, 포구로 달려나가 어로전투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 선단, 배들이사예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이번 물고기잡이전투를 통하여 당앞에 자신들의 향심과 실력을 검증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만들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 위약없이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양회수산사업소, 흥원수산사업소, 서호수산사업소, 락원수산사업소, 리원수산사업소, 흥남대정수산사업소, 성천강출하사업소,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 각기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수산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최선의 성과를 드릴바라는 한마음으로 밤과 밤이 따라 없는 치열한 어로전을 벌여 많은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수준에서 실현된 의로기공장에서 작은 자재와 로력으로 높은 정밀도를 가진 현대적의로기구의 부속품들을 만들어낼수 있게 되었으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활발 늘일수 있게 되었다.

평양전자의의로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현존생산조건에 특대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부속품을 생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평양전자의의로기공장은, 근전계, 고압감속기 등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앞으로 첨단전자의의로기공장을 더 많이 생산할기세등이 계속형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방 경 천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수산업발전의 운명이 전적으로 일군들의 각오와 준비상태, 실천활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일군들을 불러 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회의체를 열고 사상적으로 달라붙어 물고기잡이에서 일대적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신정치사업을 위호하며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적극적인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실적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중요수산사업소들을 한개씩 맡고나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기동적이고 파격적인 집중어로전을 벌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면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주어 어로공들이 근심걱정이 없고 물고기잡이에 전력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얼마전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만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물고기 포목처럼 쏟아지는 모습을 보시고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의 산과 물을 황금산, 황금벌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마음 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도 황금해로 만드는것이 우리의 숭고한 의무라고 말씀하시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산과 들, 바다를 만복의 터전으로, 더없이 귀중한 사회주의재부로 빛내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산마다 푸른 숲이 울창하고 그 어디에서나 낱알향기, 과일향기,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던치게 될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유위전에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로 자를지겠다.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만하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처럼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사상관철과 투쟁정신을 지닐 때 절명 못할 요소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전투적위훈을 이룩하는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세우려는 산림부구를 자연파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부구전투를 힘있게 벌여야 한다.

알곡생산은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협동벌리다에서 쌀폭포가 쏟아지게 하여야 한다.

계절에 구태음이 없이 사철 물고기를 잡으며 집단적으로도 잡고 없인없이도 잡으며 언더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만들어야 한다. 당연한 어로전투에 총력투입을 우리 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자연계의 조

인민군 제567군부대만하 18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물고기 포목처럼 쏟아지는 모습을 보시고 일군들과 어로공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의 산과 물을 황금산, 황금벌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마음 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도 황금해로 만드는것이 우리의 숭고한 의무라고 말씀하시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산과 들, 바다를 만복의 터전으로, 더없이 귀중한 사회주의재부로 빛내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산마다 푸른 숲이 울창하고 그 어디에서나 낱알향기, 과일향기,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던치게 될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유위전에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로 자를지겠다.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만하 18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처럼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사상관철과 투쟁정신을 지닐 때 절명 못할 요소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전투적위훈을 이룩하는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세우려는 산림부구를 자연파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부구전투를 힘있게 벌여야 한다.

알곡생산은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협동벌리다에서 쌀폭포가 쏟아지게 하여야 한다.

계절에 구태음이 없이 사철 물고기를 잡으며 집단적으로도 잡고 없인없이도 잡으며 언더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만들어야 한다. 당연한 어로전투에 총력투입을 우리 수령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자연계의 조

바다로, 포구로 달려나가 어로전투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수산사업소, 수산협동조합, 선단, 배들이사예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이번 물고기잡이전투를 통하여 당앞에 자신들의 향심과 실력을 검증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바다를 황금해로 만들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투쟁에 위약없이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양회수산사업소, 흥원수산사업소, 서호수산사업소, 락원수산사업소, 리원수산사업소, 흥남대정수산사업소, 성천강출하사업소, 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에 각기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당의 수산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에게 최선의 성과를 드릴바라는 한마음으로 밤과 밤이 따라 없는 치열한 어로전을 벌여 많은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수준에서 실현된 의로기공장에서 작은 자재와 로력으로 높은 정밀도를 가진 현대적의로기구의 부속품들을 만들어낼수 있게 되었으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활발 늘일수 있게 되었다.

평양전자의의로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현존생산조건에 특대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부속품을 생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평양전자의의로기공장은, 근전계, 고압감속기 등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과 함께 앞으로 첨단전자의의로기공장을 더 많이 생산할기세등이 계속형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방 경 천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수산업발전의 운명이 전적으로 일군들의 각오와 준비상태, 실천활동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일군들을 불러 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회의체를 열고 사상적으로 달라붙어 물고기잡이에서 일대적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화신정치사업을 위호하며 수산사업소들과 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적극적인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실적을 확대해 나가고있다.

그러하여 도적으로 매일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투가 치열해질수록 물고기잡이실적은 하

루가 다르게 계속 뛰어나고 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중요수산사업소들을 한개씩 맡고나가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모범을 따라 기동적이고 파격적인 집중어로전을 벌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면서 결된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주어 어로공들이 근심걱정이 없고 물고기잡이에 전력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바다로, 포구로 달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세 폭의 붉은기를 더 힘차게 휘날려가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파시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력사적인 로작발표 기념일을 맞으며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높은 결의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은 세계를 지퍼올려 도의 진반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평안북도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운동의 거대한 생활력을 다시금 잘감하게 된다. 지난 3년동안 도적으로 160여개의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여 도의 전반사업에서 큰 전진이 이룩된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적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중요무엇이든 이 운동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것》**

몇몇몇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도안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제를 단천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도적으로 가장 앞선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최근 3년동안에만 하여도 시안의 14개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 2중3대혁명붉은기,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그 비결은 여러가지로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주목되는것이 있다. 시책임일군들의 절기단위들에 대한 분담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이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르도록 사회전투력을 조성하여야 한다》**

세로 임명되어온 시장책임비서 리동준동무는 선진선동부에서 올려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절기단위들에 대한 일군분담안을 몇번이나 다시 들여다보았다. 책임일군들에게는 주로 조건이 좋은 단위들이 분담되어있었다. 주관부서의 일군을 불러 사연을 알아보았다. 아무래도 조건이 좋고 승산이 있는 대상들에 힘을 넣어 3대혁명붉은기쟁취단위 수를 빨리 늘일수 있었고 더구나 시의 전반사업을 돌보노라 바쁜 책임일군들을 도와주는 견지에서 이전부터도 분담안을 그런 식으로 작성해왔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들은 책임일군은 생각되는바가 있었다. 물론 그렇게 하면 3대혁명붉은기쟁취단위수를 빨리 늘여 평가를 받을수 있

평안북도당위원회 사업에서

오의 하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원리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기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보다 활력있게 밀고나갈 때 광범한 대중을 당의 로선과 정책판찰에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보았던것이였다.

그러면 당위원회가 이 사업을 어떻게 조직전개해나갔는가를 보자.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사업을 주관부서나 몇몇몇 당 일군들에게 맡겨진 사업으로만 보지 않았다. 당위원회에서 직접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보았다.

이 때 당위원회 부서들과 일군들모두가 이 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열쳐나서도록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여기서 증시한것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영도업적 단위를 앞잡이로 달려나가도록 잘 이끌어주는것이였다.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도당일군들에게 영도업적단위들을 기본으로 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절기한 단위들을 잘 도와주게

단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돌산협동농장을 맡은 시장책임일군은 물길계, 영양모에 의한 모르기방벌도입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 해결에 대해 중점을 불렀던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수습종의 농촌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고 소학교를 잘 꾸리도록 하는 등 영도업적단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사업도 추진된 판점에서 밀어주었다.

장내협동농장을 맡은 시장위원회 부서 방원동무 역시 대중운동에 대한 농장원들의 관심과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올해에 농장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다. 신공, 통대협동농장 등을 맡은 일군들도 분담받은 단위를 지켜주는데 큰 힘을 기울였다.

시당책임일군들은 총화평가사업도 해당 단위 당, 행정책임일군들만이 아니라 분담받은 일군들의 경성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에서 착신하게 하였다. 이 운동을 담당할 일군이 지성철동무가 맡아왔는데 회의뒤에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일군들과 담당할 일군을 함께 소개평가하도록 한 사실, 해당 단위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여주어 일군들을 분발시킨 사실... 책임일군들이 조건이 불리한 단위들을 맡아 대중운동에 최선을 들인 결과는 대단히 좋았다. 뒤떨어진 단위들에서 3대혁명

붉은기단위 가속히 늘어났다

이것은 앞선 단위들을 자극하여 그들이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도록 추동하였다. 결국 책임일군들이 뒤떨어진 단위들을 맡아 도와주는것이요는 시에 대중운동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일으켰는데였다. 달라진 분담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하나보다 열은 크지만 열보다 그 하나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 우리가 2중3대혁명붉은기 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실현에서 높은 실적을 내고있는 최창군 덕련리당위원회 사업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붉은기단위 가속히 늘어났다. 이것은 앞선 단위들을 자극하여 그들이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도록 추동하였다. 결국 책임일군들이 뒤떨어진 단위들을 맡아 도와주는것이요는 시에 대중운동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일으켰는데였다. 달라진 분담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성과를 좌우하는 첫걸음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첫걸음부터 잘 내걸어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첫걸음은 결의 목표를 높게 세우는것이 되고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힘있게 떨쳐주었다. 격식과 틀이 없이 군중과 함께 어울려 대오의 앞장에서 하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름을 치면서 화신식정치사업을 벌려나가는 도당책임일군의 사업기풍은 농장의 일군들과 대중의 가슴을 세계로 열었다.

그 과정에 농장은 자체의 힘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문화회관, 계급교양실을 비롯한 교양시설들을 훌륭히 꾸려놓음으로써 사상교양사업의 실효과를 높여왔으며 농업생산에 비롯한 농장의 진반사업에서 절제 없는 성과를 거두어 주었다. 당위원회에서는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사업을 해당 부서의 역할을 최대한 높여주면서 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을 조직발동하여 운동이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 326 건설공장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과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그곳 일군들과 로동에게, 농업근로자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신 사적으로 다시금 되

서해갑분 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를 발견하게 되었다. 공무직장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그랬다.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지 10년이나 되다보니 신입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술혁명수행에 대한 결의목표는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걸기하면 당시의 수준에 거의 그대로 머물러있었다. 그러다보니 사업에서 적지 않은 공백이 생기었다.

최근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서해갑분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경험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의목표를 잘 세우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는 한번 세워놓는데 고치지 말고 끊임없이 보충경신하여야 합니다》**

올해 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단위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일부 직장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이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일부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다른 농장보다 축산토대가 있었다는데 위안을 느끼면

성공과 좌우하는 첫걸음

좋은 성과를 거두려면 첫걸음부터 잘 내걸어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첫걸음은 결의 목표를 높게 세우는것이 되고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힘있게 떨쳐주었다. 격식과 틀이 없이 군중과 함께 어울려 대오의 앞장에서 하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름을 치면서 화신식정치사업을 벌려나가는 도당책임일군의 사업기풍은 농장의 일군들과 대중의 가슴을 세계로 열었다.

그 과정에 농장은 자체의 힘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문화회관, 계급교양실을 비롯한 교양시설들을 훌륭히 꾸려놓음으로써 사상교양사업의 실효과를 높여왔으며 농업생산에 비롯한 농장의 진반사업에서 절제 없는 성과를 거두어 주었다. 당위원회에서는 또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사업을 해당 부서의 역할을 최대한 높여주면서 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을 조직발동하여 운동이 더욱 활기있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 326 건설공장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과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그곳 일군들과 로동에게, 농업근로자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신 사적으로 다시금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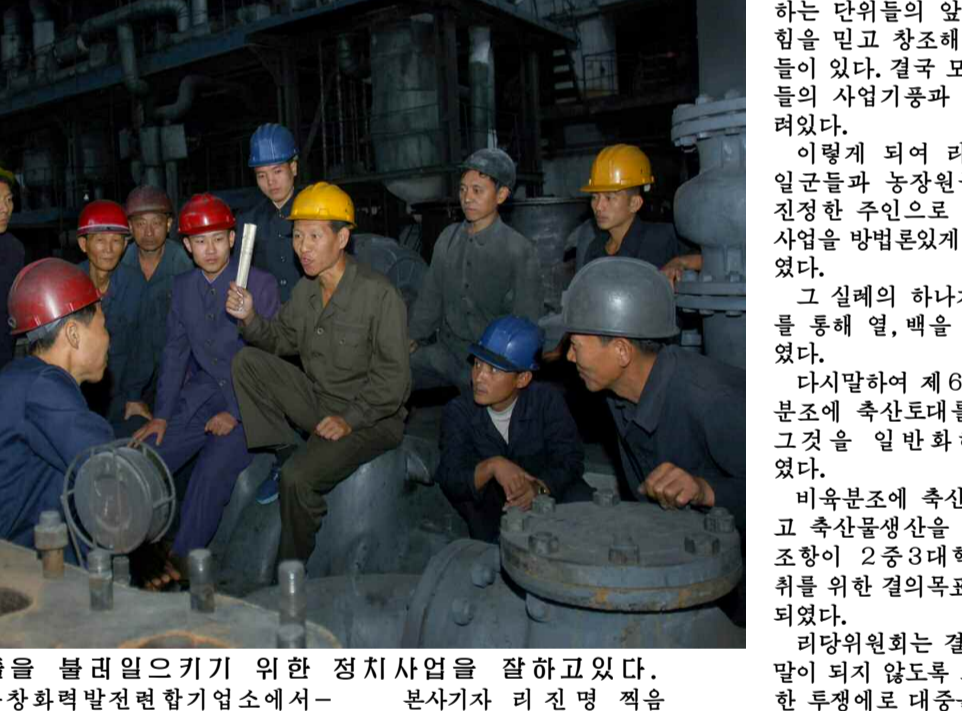
분담안이 잘 짜진 사업

단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돌산협동농장을 맡은 시장책임일군은 물길계, 영양모에 의한 모르기방벌도입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 해결에 대해 중점을 불렀던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수습종의 농촌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고 소학교를 잘 꾸리도록 하는 등 영도업적단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사업도 추진된 판점에서 밀어주었다.

장내협동농장을 맡은 시장위원회 부서 방원동무 역시 대중운동에 대한 농장원들의 관심과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올해에 농장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다. 신공, 통대협동농장 등을 맡은 일군들도 분담받은 단위를 지켜주는데 큰 힘을 기울였다. 시당책임일군들은 총화평가사업도 해당 단위 당, 행정책임일군들만이 아니라 분담받은 일군들의 경성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에서 착신하게 하였다. 이 운동을 담당할 일군이 지성철동무가 맡아왔는데 회의뒤에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단위일군들과 담당할 일군을 함께 소개평가하도록 한 사실, 해당 단위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여주어 일군들을 분발시킨 사실... 책임일군들이 조건이 불리한 단위들을 맡아 대중운동에 최선을 들인 결과는 대단히 좋았다. 뒤떨어진 단위들에서 3대혁명

하나를 통해 얻은 열

최창군 덕련리당위원회 사업에서 두테전 어느날 영도업적단위인 제6작업반의 실태를 료해하던 리당비서 명성복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동안 축산토대를 갖추기 위해 뛰여다녔지만 아직도 그 수준이 높지 못했기때문이었다. 문제는 일부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다른 농장보다 축산토대가 있었다는데 위안을 느끼면



전력생산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하고 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석탄생산의 불길 더욱 세차게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대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강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생산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석탄생산과제를 계속 확대하였다. 11월에 들어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 2배에 가까운 석탄을 생산한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그 기세를 누치지 않고 내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해 사회주의경쟁을 위해 사투리를 걸고 있다. 경쟁하는 경쟁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름, 기공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준비조건을 앞세워 메탄발을 넘겨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행 석탄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공무직장을 비롯한 보강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탄차마무리와 부속공생선, 진동기수리를 다그치고있다. 그리고 생산선 탄차마무리와 부속공, 수리된 진동기수를 제때에 갱설에 보내주어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올해 석탄생산계획을 기어 올라가겠다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석탄생산성과는 날로 확대되고있다. 특약기자 주창선

교대계획 180%는 문제 없다

명학탄광 3갱 채탄3중대 3소대 막장에서 체계는 채탄공들속에 석탄공 업무문제로 소문난 중대장 선진호동무도 보인다. 현장을 오가며 공사에 대한 지지를 취회하는 그의 모습이 불수룩 미덥게 안겨온다. 작업결정장도 놓는다. 원공기를 으스스하게 틀어쥐고 쉬고있어 안색을 훤한 당새로부터서 서용호동무가 순간에 밭과구멍을 낸다. 《우리 중대는 지난 14년 단 당장전기념일을 맞으며 단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겠다 하며다 석탄생산계획을 130%이상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전력생산을 늘일대 데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석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더 많은 석탄을 캐내어 홍남가스화대생선장에 보내주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고있다. 탄광에서는 아버지장군님의 유훈대로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전망이 좋은 채탄장들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고있다. 2갱 기본굴진 1중대 2소대의 탄부들은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그대결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는 기풍을 발휘하고있다. 그러하여 소대는 지난 9월에 내세 단계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사회주의경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약기자 리은남

선진호동무도 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 석탄공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명학탄광 3갱 채탄 3중대 3소대 채탄막장이다. 지금 채탄공들이 석탄생산을 늘일대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10월 3일까지 내년 석탄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련속발파를 들어내며 작업굴진을 틀어내고 있다. 3소대 채탄공들이 막장으로 진입한다. 모두가 날렵하게 자기 위치를 차지한다. 전진과 퇴각의 균형은 보장하기 위해 막장조건에 맞는 작업조직을 한다는것이 달린다. 총공격전의 기상안고 결사적 일을 해

탄부들

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탄부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탄광에서는 후방공급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탄부들의 사기를 부려 높여주고있다. 석탄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청년갱, 전진갱, 6갱, 2갱, 1갱, 서부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폐쇄공매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석탄생산을 계속 혁신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특히 청년갱, 2갱, 전진갱을 비롯한 여러 갱들에서는

혁신의 불바람을

전력생산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하고 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화력발전소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서창년전면탄광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